

제6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 분단과 평화 사이

일시 | 2019. 02. 26.(화)~02. 28.(목)

장소 | 북한산 생태탐방연수원, 철원 일대

주최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후원 | 4.9통일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 목 차

---

▪ 제16회 인권활동가대회를 시작하며	.....	04
▪ 제16회 인권활동가대회 일정표	.....	05
▪ 우리들의 약속	.....	06
▪ 철원지역 및 기행장소 소개	- 이런 철원에 갑니다	..... 07
	- DMZ평화기행 일정 및 장소 소개	..... 08
▪ 프로그램 소개	- 《북도 남도 아닌》(최중호 감독) 소개	..... 11
	- [읽기자료] ‘먼저 온 통일’은 어떻게 신 민이 되었나	..... 12
	- 《핏빛파란》(노순택 작가) 소개	..... 19

## 제16회 인권활동가대회를 시작하며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분단체제를 끝내고 이제 평화체제 이행기를 맞이하기 위한 과제를 이야기합니다. 불과 몇 년 전 전쟁을 불사할 것 같던 남북미 정상들이 만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니 감동적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뭉클함도 느낍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체감되는 어떤 감각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70여 년의 분단체제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지 그려지지 않습니다.

작년 세계인권선언 70년을 앞두고 열린 연속토론회와 인권운동포럼에서 이러한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분단체제의 종식과 평화체제의 시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분단과 평화 사이>에 있는 지금,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그려야 하는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과 분단의 기억이 새겨진 장소를 답사하며, 16회 인권활동가대회가 그 실마리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 제16회 인권활동가대회 일정표

■ 2월 26일(화)

시간	프로그램
13:30~14:30	등록 및 방 배정
14:30~15:45	여는 마당 - 일정 브리핑, 탐방원 공간 안내, 우리들의 약속 공유, 우리단체 소개 1+
15:45~16:00	쉬는 시간
16:00~18:00	영화 《북도 남도 아닌》 관람 및 최종호 감독과의 대화
18:00~19:00	저녁식사 / 탐방원 1층 식당
19:00~22:00	《핏빛파란》 노순택 작가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

■ 2월 27일(수)

시간	프로그램
07:30	아침식사 / 탐방원 1층 식당
08:30	탐방원 입구 모여서 도봉산공영주차장으로 이동
09:00	철원으로 출발
11:00~12:00	[기행] 한탄강 / 고석정 - 승일교
12:00~13:00	점심식사 / 옛고을순두부집(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3로 41)
13:00~16:00	[기행] DMZ 평화순례 / 노동당사 - 평화전망대 - 월정리역
16:00~17:00	[강연] “분단과 평화 사이” 강연 / 국경선 평화학교 정지석 교장
17:00~19:00	다시 서울로
19:00~	저녁식사 만찬 & 친목 다짐시간

■ 2월 28일(목)

시간	프로그램
08:00	아침식사 / 탐방원 1층 식당
09:00	갈무리 시간 “17회에서 다시 만나요”
10:00~12:00	인권운동더하기 전체회의

## 우리들의 약속

01. 처음 보는 사이에는 나이 관계없이 존댓말을 사용하고 말을 놓을지 여부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요.
02. 호칭을 00님으로 통일해요.
03. 우리 모두가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한 발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절해요. 그리고 말을 하고 싶지 않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과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고 기다리고 귀기울이여 들어요.
04. 잘하는 것, 못하는 것, 경험의 문제들을 나이와 연관 지어 생각하지 않고, 특정 나이대의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를 부여하고 그것을 투영하는 것을 조심해요.
05. 경험과 경력에 따른 위계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에게서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요.
06. 모두가 학교에 다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초면에 출신 학교나, 전공에 대해 묻지 않도록 해요.
07. 연애와 결혼은 필수가 아님을 유의해요.
08. 상대방의 겉모습을 평가하는 발언에 유의해요.
09.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성별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존중해요.
10. 00다워야 하는 건 이제 그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11. 정체성을 어디까지 공개해도 괜찮은지 묻고, 원치 않은 질문은 삼가요.
12. 소수자(여성/장애/질병/나이/인종/비육식 여부) 비하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요.
13. 생리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며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고, 생리하는 이가 편안함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는 캠프를 만들어요.
14. 불편한 것을 표현하는 건 분위기를 망치는 일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이 있다면 가장 편한 스텝이나 동지에게, 가장 부담이 안가는 방법으로 불편사항을 꼭 전달해주세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행동입니다.
15.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희롱은 하지 말아요.
16. 뒤풀이 자리에서는 본인의 주량만큼만 적당히 마셔요.
17. 흡연은 정해진 곳에서만 해요.

※ '우리들의 약속'은 2017 인권캠프 '교차로'의 내규를 참고하여 정리했습니다.

## 철원지역 및 기행장소 소개

### 이런 철원에 갑니다

철원은 강원도의 여러 군(郡) 중 하나이다. 이 지역은 강원도 전체 지역 중 최서단과 최전방 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군의 북부로 휴전선이 지나간다. 경원선 월정리역의 녹슨 철도와 기차(철마는 달리고 싶다)가 보여주듯 남북 분단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군이며, 철원 노동당사, 평화전망대 등 최근 평화관광지로 손꼽히는 곳 중 하나다. 한반도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경원선, 금강산선 부설 이후 강원도의 주요 교통 거점이었지만 남북 분단과 6.25 전쟁으로 파괴되고 크게 쇠락했다.

궁예가 후고구려(태봉)의 수도를 천도한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철원(鐵原)을 우리말로 풀면 '쇠별'이 되는데, '수도'를 의미하는 '서울'이란 말의 유래 중 하나라고 보기도 한다.

동쪽으로는 양구군 및 화천군, 서쪽으로는 경기도 연천군, 남쪽으로는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화천군과 접하며 북쪽으로는 휴전선을 경계로 북한령 철원군, 평강군, 김화군과 접해있다.

북한령 철원군은 원래 남한의 철원군과 한 지역이었는데 한국전쟁 이후 휴전선을 경계로 대부분이 남한에 편입되고 철원군 북부지역만 북한에 남아서 주변지역을 합쳐서 만든 것이다.

남북분단 이전에는 동쪽으로 김화군(북한령 포함)과 북한령 평강군, 북쪽으로 북한령 평강군, 이천군, 남쪽으로 연천군과 포천군이 접하였던 곳이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원래의 지역 특성에다가 경원선과 금강산선이 분기되는 교통의 요지라 엄청나게 발전했으며, 실제로 해방 직전인 1944년 당시까지만 해도 당시 철원읍은 춘천읍에 이어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다. 북한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이기도 했으나, 1948년 원산으로 도청이 옮겨가고 북한 입장에서 최전방 지역에 해당되어 몰락하기 시작했다. 끝내 6.25 전쟁이 터지면서 폭격을 받게 되었고, 전쟁이 중반을 넘어가자 북한군과 국군은 철원·김화·평강 일대, 이른바 '철의 삼각지'를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전투를 벌였다. 이로 인해 철원역과 당시의 시가지는 흔적만 남기고 모두 파괴되었으며, 지금은 무인지대다. 철원에서 엄청난 격전이 벌어진 또다른 이유는 당시만 해도 쌀은 나라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곡창지대를 잃으면 큰 손실이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면적에 비해 주민이 별로 없고 미개발 상태인 지역이 많으며, 비무장지대와 인접하니 철새

들의 천국으로 특히 겨울에는 엄청난 수의 철새들이 철원 평야를 찾아온다. 철원군의 마스코트가 두루미일 정도. 이 때문에 농민들은 철새들을 위해 추수 뒤 논밭의 낙곡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다.

### 철원 DMZ 평화기행 일정

시간	프로그램
11:00~12:00	[기행] 한탄강 / 고석정 - 승일교
12:00~13:00	점심식사 / 옛고을순두부집(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3로 4)
13:00~16:00	[기행] DMZ 평화순례 / 노동당사 - 평화전망대 - 월정리역
16:00~17:00	[강연] “분단과 평화 사이” 강연 / 국경선 평화학교 정지석 교장

### 평화기행 장소 소개

#### ■ DMZ 평화문화광장

DMZ 평화문화광장은 한반도 분단의 현장 마을 철원 DMZ 남쪽 민통선 안에 2011년 10월에 설립되어 강원도의 남북한 평화통일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는 상징적 장소이다. 평화통일교육, 문화예술 축제, 태봉국 역사 전시와 철원의 생태관을 운영한다. 2013년 3월 1일, 강원도청과 협력하여 남북한 평화통일의 일꾼을 육성하는 국경선평화학교가 개교하여 평화통일 교육의 산실로 사용되고 있다. 2013년 정전협정 60주년 기념 국제평화회의, 청소년 평화통일 축제마당, 분단 70년 남북한 평화통일 국제회의(2015년)가 개최되고, 매년 전국에서 찾아오는 많은 방문객들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이 진행 중이다.



#### ■ 월정리역

남한의 최북단에 위치한 경원선 기차역이다. 전쟁 때 폭탄을 맞아 기차가 두 동강이 났는데, 전쟁이 끝난 후 북한이 북쪽으로 돌아가면서 기차의 앞부분을 가져가 현재 월정역에서는 60년 째, 그대로 남아있는 기차의 뒷부분을 볼 수 있다. 월정역부터 북한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평강역까지 19km, 현재 끊어져 있는 기차길이 이어진다면, 경원선을 타고, 서울에서부터 원산,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 및 유럽까지 기차로 여행할 수 있다.





### ■ 철원 노동당사

1945년 해방 직후, 한반도가 소련과 미국에 의해 38선으로 나뉘었을 당시 철원은 북한에 속했다. 철원노동당사는 평양노동당사 다음으로 큰 공산당 건물이었다고 한다. 철원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움직임이 활발하고 쌀농사가 잘 되어 부유했던 지역으로, 노동당사는 소련 스타일로 지어졌다. 한국전쟁의 치열한 전투 지역이었던 철원의 건물들은 거의 모두 파괴되었는데 노동당사의 잔해는 당시 전투의 치열함을 잘 보여주는 전쟁유적이다. 노동당사에서 우리는 평화의 소중함을 잘 배울 수 있다.



### ■ 소이산

철원에 오면 꼭 가봐야 할 명소이다. 성인의 발걸음으로 15~20분 정도 오르는 작은 산이지만, 정상에 서면 민통선지역, DMZ, 북한 땅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예전에는 미군이 주둔한 곳이라 민간인은 출입이 통제가 되었는데, 2011년 11월부터 개방되었다. 지뢰가 있던 땅에 길(trail)을 만든 “지뢰꽃길“이 있다. 국경선평화학교의 피스메이커들이 매일 오후 3시 평화통일을 기도하며 소이산을 오른다. 정상에 올라 남북한 분단의 땅을 바라보며 평화통일과 민족치유를 기도한다.



### ■ 승일교

한탄강을 가로지르는 높이 35m, 길이 120m, 폭 6m의 승일교는 절반은 북이 절반은 남이 만든 다리다. 1948년 북이 건설 중에 6.25전쟁으로 중단되고 1958년 남에서 나머지 구간을 다른 공법으로 마저 완성했다. 승일교의 교각을 자세히 보면 북측과 남측이 공사를 진행한 부분의 모양이 다르다.



### ■ 농산물 검사소

원래의 이름은 ‘곡물 검사소 철원출장소’ 이다. 이 농산물 검사소는 철원지방의 너른 평야에서 나오는 각종 농산물의 품질을 검사했던 기관의 건물이다. 이곳에서 선별된 농산물을 철원역을 통해 원산역으로 보낸 다음 원산항에서 배로 실어 일본으로 보내졌다. 서울에서 원산을 잇는 경원선은 일본이 더 많은 농산물을 수탈해가기 위해 놓여진 철도이다. 지금의 이 넓은 철원 들판은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생산량의 쌀을 가져가기 위해 일본이 개간한 것이다. 농산물 검사소는 북한정권하에서는 검찰이 사용했으며 양민수탈과 불순분자 색출 체포, 취조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철원 근대 유적 중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유일한 건물이다.



■ **얼음창고**

농산물 검사소를 지나 오른쪽으로 보이는 건물이 얼음창고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식당 주인이 개인용으로 세운 건물이다. 철원역을 중심으로 변화했던 이곳에는 40여개의 음식점, 말하자면 요리집이 있었다고 한다. 한 겨울에 인근에 있는 산명호에서 얼음을 캐와서 이곳에 보관하였다가 여름 내내 각 음식점에 팔았다고 한다.



■ **제 2 금융조합지**

당시 철원에는 석산은행, 동주금융조합, 철원금융조합 그리고 제2금융조합 등 4개의 금융기관이 있었다. 한국전쟁 때 파괴되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저 부분은 아마도 금고일 것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금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장 튼튼하게 지었을테니까.



■ **철원역**

서울까지는 97.3km(2시간), 원산까지는 124.1km(3시간) 거리이다. 이곳의 농산물을 원산역으로 실어 나르는 주요한 역으로서의 역할도 있었지만 또 하나 이곳에서 내금강으로 들어가는 금강산 전기철도가 시작되는 곳이다. 1936년 철원읍에서 금강산을 연결하는 철도가 개통되면서 철원읍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았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금강산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철원역에 내려서 금강산철도를 갈아타야했다. 내금강까지 116.6km(4시간) 거리이다. 당시 5만여 평의 부지에 역장을 포함한 역무원이 80여명이 있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상당히 컸던, 지금으로 하자면 서울역 정도의 아주 변화한 역이다. 얼마 전 경원선 복원 공사를 진행해 2017년 7월까지의 완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다. 남방한계선 옆 마지막 역인 월정리역까지 복원 공사를 한 다음 DMZ를 넘어 평강까지 이어진다면 유라시아 선이 연결되어 그 때는 유럽 여행을 비행기가 아닌 열차로 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이다.



■ **평화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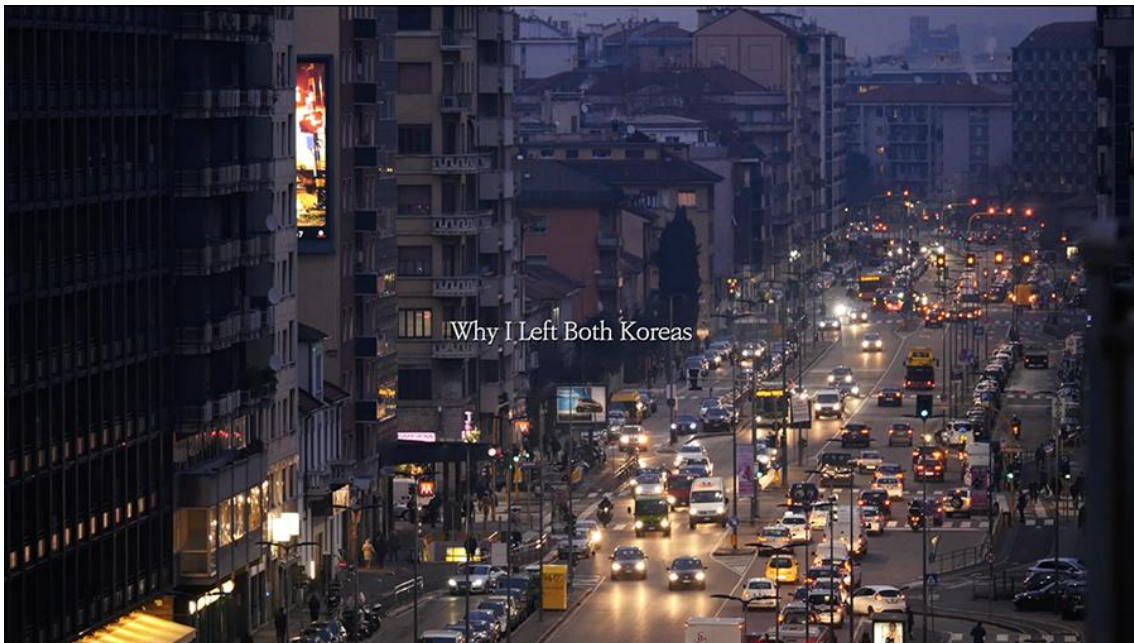
평화전망대는 인근의 철의 삼각전망대 앞으로 나무들이 우거지면서 제 기능을 잃어 2007년 준공되었다. 강원도 철원군 증부전선의 비무장지대와 북한 지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로 제2땅굴과 군 막사, 검문소를 재현한 전시물과 비무장지대 사진 등이 갖춰져 있으며, 50인승 규모의 모노레일이 설치돼 관광객들이 쉽게 전망대에 오를 수 있다. 태봉국의 옛성터와 철원 평야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으며, 쌍안경을 통해 북한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



## 프로그램 소개

### 영화 <북도 남도 아닌> 소개

최중호 | 2017년 | 다큐멘터리 | 영국, 한국 | 85분



#### 시놉시스

2000년대 한국에서 탈북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떻게 이용당했고 왜 떠날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 많은 탈북자가 희망과 삶을 찾고 행복을 누리기 다 감시와 차별에 밀려 괴로워하고 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남한 정착 후 다시 제 3국인 해외로 떠난 탈북자는 2천 여 명. 무엇이 그들을 그 먼 땅 까지 밀어낸 것일까?

## ‘먼저 온 통일’은 어떻게 신민이 되었나

김 화 순<sup>1)</sup>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 북한을 떠났던 식량난민의 일부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국내에 정착하는 탈북주민의 수는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주민들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우면서 이질적인 탈북주민들과 남한주민과 어울려 사는 과정 그 자체가 일종의 ‘통일실험’이자 ‘사람의 통일’이라고 미화되었지만 그들이 겪은 현실은 아름답지도 녹록하지도 않았다. ‘먼저 온 통일’은 이제 臣民이 되도록 강요되었다.

### 1. 국가권력과 탈북주민, 스러진 시민적 맹아

한국 시민사회는 촛불혁명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박근혜대통령을 파면하고, 세상을 바꾸어나가는 과정에서 커다란 성취감과 기쁨을 누렸다. 반면에 탈북주민들은 자신들의 ‘수령’을 비방하며 심지어 쫓아내는 남한의 시민들을 보고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

“나는 이 한국이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야비하달까...고저 남은 기일 얼마 안되는 걸 박근혜라는 여자가 나쁘긴 나쁘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원순데” (2017년 4월 15일 필자면접, 50대 남성 탈북주민, 당세포비서 출신, 현재 생산직 노동자)

“북한은 대통령이 한번 되면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잖아요. ...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대통령이 수령이랑 같은데 그 사람을 떠받들진 못할망정 사람들이 막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도 한 나라 대통령인데 왜 대통령 비방하고 무시하고...” (2017년 6월 21일 필자면접, 40대 여성, 2006년 탈북, 서비스업 노동자)

이제까지의 탈북민 관련 저술이나 논문들은 주로 “정착의 어려움”이나 ‘한국사회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왔다. 이 같은 이주민 적응패러다임으로는 지난 2년간 탈북민사회에 불어 닥친 위기와 촛불정부에 대한 탈북민의 불신과 불안감, 문재인정부가 그들을 북에 돌려보낸다는 루머와 혼란, 탈북민사회에 존재하는 극우편향성과 시민적 정치참여를 설명하지 못한다. 오늘날 전염병처럼 탈북민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 같은 불안증 증후군은 분단체제가 낳은 마음의 병이다. 가해자가 아니라 귀순용사나 통일역군으로 이용당해온 피해자들이 겪는 마음의 병이라는 점에서 더욱

1) 한신대학교 통일평화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odry2003@naver.com](mailto:odry2003@naver.com) 이 원고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에서 지원하는 시민평화포럼의 “2018 평화보고서 사업의 ‘먼저 온 통일은 왜 신민이 되었나’”를 수정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역을하다. 탈북시 국가의 금지한 경계선 넘기를 통해 그들 내부에서 싹터왔던 ‘시민의 맹아’는 남한에서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에 의해 철저히 스러져버리고 오늘날 탈북민사회는 혼란 상태에 빠져있다.

문재인정부 집권이후에도 평양 남북정상회담, 평화체제로의 이행이 가시화되고 평화의 희망이 커질수록, 탈북민사회는 불안감에 빠진 채 점점 작아져가고 있다. 국가가 그들에게 만들어준 정체성인 ‘통일 역군’은 의미를 상실했으며 ‘먼저 온 통일’ 담론이 파산하였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를 남한사회의 ‘무용지물’이라고 느끼고 있어 문재인정부가 그들을 북한에 돌려보내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표류한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역설적이다. 탈북주민은 비록 북한체제의 독재에 맞서 드러내고 투쟁하지는 않았지만 독재체제를 거부하고 자유 혹은 새로운 삶을 찾아 국가가 금한 경계선을 넘어 탈북했던 사람이 아니던가. 한 탈북주민은 말한다. 국가가 정한 경계를 넘어서는 그 순간 그들의 내부에서 ‘시민의 맹아’가 싹텄다. 이러한 말이 무색하게도 그 후 한국에 온 탈북주민들의 정치행보는 알려진 바와 같다. 2018년 3월 현재 3만 1,530명에 달하는 탈북주민의<sup>2)</sup> 상당수가 우파가 내세우는 반북주의에서 자신의 탈북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발견하고, 친북의 의심을 받는 좌파와는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켜왔으며, 일부 탈북주민 단체들은 대북전단을 살포하여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고 미사일시험발사를 규탄하는 반복운동에 앞장섰고 북한의 인권상태를 비판하였다. 지난 박근혜 정부시기에 탈북주민들은 극우적 성향의 정치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더 잦아지게 되었고, 세월호처럼 일반 시민들의 깊은 공감과 지지를 받아온 사안에도 일부 탈북주민은 정반대편의 대열에 앞장서면서 한국 시민사회와 대극점에 놓이게 이르렀다. 문제는 이러한 탈북주민집단의 정치적 행보가 그들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자발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한국내의 정치적 커넥션에 의해 움직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탈북주민들은 세월호 반대집회의 경우에는 5개월 동안 39회에 걸쳐 연인원 1,259명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위동원시 탈북주민 1인당 2~3만원의 수당이 제공되었다.<sup>3)</sup> ‘탈북어머니연합’과 ‘어머니연합’의 주도권 싸움에서 ‘어머니연합-전경련-청와대를 둘러싼 이러한 뒷면의 내밀한 거래관계가 적나라하게 밝혀지게 되었다.

역대 정부는 탈북주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지만, 특히 2016년 들어 탈북은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본격적인 탈북이주가 시작된 지난 20여 년 동안 탈북행위는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귀순’으로 해석되어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증명하고, 남한 체제의 우월을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되었고, 선거나 정권 위기 상황에서 국면 전환과 선거승리를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2016년 4월 총선직전, 12명 북한음식점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통일부가 공개발

2) 통일부에 따르면 2017년 6월 현재 탈북주민 수는 30,805명이다. 그 중 여성의 비율이 70%를 넘는다. 2001년에 탈북주민 수가 처음으로 1천명을 넘었고, 2006년부터는 매년 2천명을 넘었고, 2008년에는 2,803명으로 절정에 달하였다. 그러다가 김정은이 권좌에 오른 2012년에는 탈북주민 수가 급감하여 1,502명으로 줄었고, 2015년에는 1,275명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1,418명에 달하였고 여성의 비율은 79%이었다.

3) 2016년 jtbc 뉴스를 중심으로 4.19일부터 28일까지 어머니연합관련 기사들이 매일같이 보도되었다.

표를 하여 일반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켰고, 동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주민의 탈북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탈북주민들의 극우보수적 정치참여는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이어지는 탄핵국면에서 최고조에 달한다. 많은 탈북민들이 태극기 집회에 참가 혹은 동원되었다. 이들이 가지고 왔던 ‘시민적 맹아’는 스러지고 남한에 온 이후 더욱더 국가권력에 굴종하는 臣民으로 변해갔다. 전태국(2018)<sup>4</sup>)에 의하면 ‘신민문화’란 주민이 정치에 대해 오직 수동적 이해만을 가졌고, 자신을 정치적 객체로 여기는 문화를 가리킨다. 탈북민들의 신민화가 진행된 데에는 입국시부터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입국심사와 이어지는 보호라는 명분의 분리된 정착지원 체계 즉 분단체제의 탈북민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국가 권력기관인 국정원은 입국시 합동신문과정을 통해 탈북주민들을 조사해왔다. 휴전상태에서 적대국가에서 온 위장탈북주민을 가려내고 탈북주민 중에서 정탐하려는 목적으로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을 가려내는 일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합동신문에서 탈북주민들이 심문과정에서 처한 인권적인 열악성은 전쟁포로보다 못했다. 아주 오랫동안 탈북주민들이 어떤 열악한 인권상황에 처하는지는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문제도 되지 않았다. 합동신문을 나온 탈북주민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열악한 인권 처우에 대해 침묵하였다. 2000년부터 최근에 이르는 시기에 탈북주민 심문에 사용된 여러 기법들에서는 지난 시기에 간첩을 잡는데 사용되었던 여러 기법들이 총동원되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나 홍강철 사건이 대표적이다. 결국 뉴스타파와 민변 등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간첩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국정원의 합동신문은 오늘도 존재하다.

합동신문을 거친 이후에도 국정원과 탈북민과의 끈끈한 인연은 수년 수 십 년씩 이어진다. 반세 월호 집회나 태극기 집회에 조직적 참여로 표현되는 탈북민의 극단적 우파로의 정치적 쏠림현상과 관제데모에의 참여, 일당시위로 나타난 탈북민의 신민적 정치지향은 이 같은 대한민국 국민만들기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것이다.

## 2. 탈남한 탈북민들, 그들이 말하는 대한민국

탈북민들 역시 한국사회 국가권력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저항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2005년경부터 10년 동안 탈북민사회에 광풍처럼 불어 닥친 탈남 러시의 원인을 연구자들은 당시 규명하지 못하였다. 왜? 원인을 철저하게 탈북민 쪽에게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에서 찾지 않았다. 부적응이다, 복지쇼팽이다, 이주자들의 재이주 특성이다. 여러 가지의 해석이 나왔지만 국가권력에서 그 원인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 간 이른바 ‘먼저 온 통일’라고 불리워온 북한 출신 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겪었던 선행 통일경험은 오늘날 평화체제 이행을 앞둔 한국사회에 시

4) 전태국. 2018. 평화체제이행기 남북한시민 통합의 길. 평화체제이행기 탈북주민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남북시민통합연구회, 시민평화포럼 공동주최 세미나. 2018.10.23

사점을 주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한국사회를 야반도주하다시피 떠났던 탈북주민들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16년 통일연구원 탈북주민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16.2%가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최중호 감독의 2017년 다큐멘터리영화인 ‘북도 남도 아닌’ 은 탈남하여 유럽으로 간 탈북주민들이 본 한국사회에 대해 답답하지만 솔직한 목소리를 제공한다. 그들은 단지 ‘부적응’ 하거나, ‘선진국 복지를 찾아’, 단순히 ‘차별 때문에’ 대한민국을 떠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의 정치적 동원, 공안기관의 지속적인 감시, 탈북자라는 낙인과 배제 등으로 한국사회에 희망이 없기에 떠났다고 말한다. 2017년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는 탈북주민들 역시 탈북자라는 낙인 그리고 배제로 마치 유리벽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다고 심정을 토로한다.

한국을 떠난 탈북민들이 보는 한국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국가권력이 입맛에 따라 탈북주민을 동원하는 사회이고 유리벽이라는 차별에 탈북민을 가두어 놓는 사회이고 낙인을 찍어서 감시하는 사회이다. 한성무역 사기피해사건에서 보듯이 국가권력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감시를 하지만 막상 위협에 부딪히면 정작 보호받지 못한다. 모든 탈북민들이 잠재간첩으로 의심받고 때로 간첩으로 조작되며 궁극적으로 간첩을 필요로 하는 사회이다.

#### ① 국가권력이 탈북주민을 동원하는 사회

유럽에서 망명을 신청한 최승철씨는 한국에서 경험한 국가권력의 관제시위 동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탈북자들이 원해서 데모를 하는 게 아니고 데모 같은 거 가면 돈 줘요. 보수단체에서 돈 줘요. 거기 가면 뭐 주니? 한국사회가 나쁜 게 뭐냐면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 있어. 관변단체, 국가에서 하라하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행사 동원하면 돈 주니까. 대표적인 관변단체, 그 다음에 통진당 반대한다.. 교통비로 2만원씩. 그 다음에 탈북자들 댓글 알바 잘해. 자. 이제부터 무슨 사건 생겼으니까. 부화뇌동으로 탈북자들 희동시켜 봤으니까.”

이 같은 탈북자들의 증언은 그간 jtbc언론보도에서 밝혀진 바와 같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반대파를 음해하기 위해 은밀하게 진행되어온 범죄행위에 탈북주민들이 연루되거나 시민적인 공감대가 큰 사안을 반대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동원되었다. 예를 들어 세월호사건 등의 반대집회의 경우에는 5개월 동안 39회에 걸쳐 연인원 1,259명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위동원시 탈북주민 1인당 2~3만원의 수당이 제공되었다. 한 탈북주민은 하나원에서 나온 직후에 다른 탈북자를 통해 국정원 댓글을 달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받은 돈은 한 달에 5만원이었다. 그들이 동원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한국사람이라면 고액을 받고서도 꺼려했을 더러운 일들을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알고 적은 돈으로 하는 저렴하고 어리숙한 노동력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태의 가장 근본적이고 무거운 책임은 국가권력에게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 ② 유리벽에 갇히다: 분리하고 배제하는 한국사회

‘북도 남도 아닌’ 다큐멘터리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인물은 한국 거주 7년차의 한 탈북남성이다. 영상은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을 비추고, 그는 자신들이 유리벽에 갇혀 있다고 절규한다. 그는 탈북주민이 유리벽에 갇혀있는 현실이야말로 10만 명당 OECD 국가 최고의 자살률을 자랑하는 한국 사람보다 몇 배나 높은 자살률을 초래한 이유라고 주장한다.

“탈북자들은 유리벽 속에 살아. 숨 막히게 숨 못 쉬게 유리벽 속에 가둬놨거든. 유리벽이라는 차별에 우리를 유리벽 속에 탈북자들을 가둬 놔거든. 그래서 한 유리창 깨고 나가면 또 유리창이 있어.”

그가 말하는 유리벽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안기관의 감시에서 한국사회의 배제 나아가 분단체제까지를 포괄한다. 그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자살 관련 데이터로도 증명되는데 사망자가 많았던 2015년 상반기에는 사망자 대비 자살률이 한때 15.2%에 달했다(원혜영 의원실, 통일부자료).

## ③ 낙인찍는 사회, 감시하는 국가

탈북민들은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한다. 동정하거나 알아보거나. 혹은 양쪽이다. 영국에 거주하는 최승철씨는 사업실패이후 회의에 빠져있을 때 자신의 친구가 “너 여기(한국) 와서 아무리 해봤자 너는 탈북자 아니냐? 거긴 진짜 다르다” 는 말에 영국행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한 탈북여성도 아무리 한국 사람들을 흉내내고 살아도 자신들이 한국 사람이 될 수는 없다고 동조한다.

북한사람들은 불쌍해요. 한국에서도 편견이죠. 왜 여기 와서 절망감을 느끼는가. 외형적으로 누가 죽이는 사람 없어. 이 사람들 아무리 한국 사람들을 흉내 내고 살아도. 한국에 오니까 자유스럽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국내 거주, 40대 탈북여성)

사회에 나온 이후에도 계속 따라붙는 국가 공안기관들의 감시는 그들에게 말 못할 고통이다. 한 탈북주민은 어느 정도 보안기간이 끝나면 그 탈북자라는 명예를 잃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늘 자신의 뒤에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격이라는 것이다. 보안기간은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 많은 탈북주민들은 수년은 물론 십년이 넘어도 계속 경찰이나 기무사가 연락하고 체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한다. 유럽으로 떠난 한 군인출신의 한 탈북자는 그는 ‘감시’ 라고 할 정도의 관심을 받아야 했으며 결국 그가 한국을 떠나는 한 이유가 되었다.

“근데 그게 다 감시거든. 어디로 이제 가고 하는 거 다 보고하라는 거야. 자기는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한데, 말은 그런데 감시차원이지. 그런 것들.”



신변보호경찰관은 공식적으로 말하는 보호의 이유는 북한의 테러 등 탈북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영상에서 탈북여성은 다음과 같이 신변보호의 본질을 간파한다. ‘감시’이지 보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우리 진짜 살아가면서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거나 우리 살아가는 데서 이 사람들이 도움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어.”

한국에 온 탈북주민들에게 국가권력은 야누스와 같은 존재였다. 탈북주민들에게 국가는 국내취약계층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였지만 그것은 공짜가 아니었다. 입국시 6개월까지 구금이 허용되는 국정원에서 전쟁포로보다 열악한 ‘간첩 골라내기’ 상황에 놓였고 일부는 간첩으로 조작되는 수난을 겪었다. 지난 10여 년 간 국가권력에 의해 국정원 댓글사건, 반 세월호집회 알바시위 등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를 수행하도록 그들은 동원되었고 집단교육시설인 하나원에서 3개월 간 숙박교육을 거쳐 세상에 나온 이후에도 신변보호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감시상황에 놓여 있다.

### 3. 경계인을 넘어 남북민중의 연대와 통합

지난 2018년 4월에 통일부가 2018~2020년까지의 탈북주민 정착지원정책 방향을 발표된 바 있으나 평화체제 이행을 위한 새로운 정책 없이 과거 박근혜정부의 사업들을 그대로 나열하는 데 그쳐 실망을 주었다. 아직도 촛불정부인 문재인정부에서 분단체제의 얼음이 그대로 꽂꽂 얼어있는 탈북민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며 어떤 개혁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분단체제 국가권력이 언제까지 탈북민을 ‘지원’ 한다는 명분으로, ‘보호’ 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을 일반사회에서 격리하여 별도로 관리할 것인가? 국정원 합동신문 6개월(2018년부터 3개월로 단축), 통일부 하나원 3개월 이어지는 각종 적응교육과 제2 하나원으로 불러들여 행하는 직업훈련 등 별도의 교육, 별도의 행정체계, 별도의 취업지원체계. 분리는 통합을 역행한다. 새로운 전달체계는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필요로 한다. 별도의 분리체계가 과연 누구를 위해 필요한 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 진보인사가 나에게 물었다. “고작 3만 2천명에 불과한 소수자인 그들에게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에게는 4천만이 더 중요하지 않나. 박근혜정부에서 많이 받은 사람들 아닌가” 그러나, 이 질문은 틀렸다. 그들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다. 김동춘이 말하듯이 “남북한의 통일은 단지 두 개의 국가의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체제의 희생자들을 사회로 통합시켜 내는 일, 즉 남한 내의 통합과 평화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수 십 년씩 기한 없이 무작정 경찰이나 국정원에 의해 보호라는 이름으로 ‘감시당하는 사람들’ 이 있다면 우리 역시 자유로운 시민은 될 수 없다. 국정원의 서식처가 우리 사회에 존재

함에도 이에 침묵한다면 우리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간첩을 골라내고 간첩이라는 사실을 자백받기 위해 반년씩 합법적으로 독방에 감금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대한민국이 인권이 있다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탈북자다.

우리는 분단체제의 경계인들에게 어느 편인지 더 이상 묻지도 말고 분리하지도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자유롭고 평화롭게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놓아 주어야 할 것이다. 분단체제가 아닌 평화로운 세상, 탈북자라는 이유로 낙인찍거나 배제하거나 분리하지 않고 감시하지 않으며 간첩으로 만들지도 않는 사회, 노동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회. 평화체제는 일부 주류사회에 속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소수자들을 인정하고 통합하는 포용국가의 건설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오늘날 탈북민이라는 새로운 시민의 등장은 시민사회에게 주어진 새로운 질문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우리는 탈북민이라는 거울을 통해 남한 국가권력이 지닌 폭력성과 한국사회 시민의식의 얕음,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북녘동포를 내려다보는 우리의 졸부적 거만함을 발견한다. 국가권력의 간첩제조와 감시, 한국사회의 배제적 통합과 이등국민 취급은 그들을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발붙이지 못하고 낯선 나라들을 유령처럼 떠돌도록 내몬 주역이다.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러한 일들을 바로 알고 바로 잡고자 함께 노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남북민중의 연대와 통합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핏 빛 파란〉  
(Bloody Bundan Blues) 소개



여기 그을린 몇 점의 사랑, 아니 삼겹살이 있다.  
이 사랑은 익다 말았다. 아니 타다 말았다.  
삼겹살은 그저 음식이기에, 우리는 그저 바라본다.  
이것이 타다 만 사람의 살이라면,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작업을 시작한 이래 나의 관심사는 늘상 분단의 작동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분단의 작동과 오작동, 분 단체제의 정교함과 어설피름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분단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은, '나는 누구이며, 너는 누구인가'를 묻는 것만큼이나 존재론적인 질문인지 모른다. 분단의 어떤 풍경은 가시적이고, 어떤 풍경은 비가시적이다.

무엇이 드러났고 무엇이 가려졌을까.  
무엇을 보았지만 무엇을 지나쳤을까.  
무엇을 더 보아야 하며, 무엇을 더 생각해야 할까.  
무엇이 드러남으로 인해, 무엇이 감춰지는 효과가 발생했을까.  
저것을 지금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번 보여주었던 그것은 왜 지금 사라졌나.

분단은 무언가 보여줌으로써 무언가 감춰왔다. 보여주는 거나 열심히 보라는 식으로 타당한 호기심과 의심을 쓸 데 없는 것으로 치부해 왔다. 의심엔 대가가 따른다는 혹독한 교훈도 알려주었다. 남과 북 모두에서.

이번 전시는 그동안 진행해 온 여러 작업들 중 분단문제와 비교적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작업을 추려서 엮은 것이다. 중심에 둔 작업은 <붉은틀>이다. 이 연작은 북한에 관한 세 개의 시선을 담고 있다.

제1장 ‘펼쳐들다’는 북한사회가 보여주고 싶은 장면의 일단을 제시한다. 일사불란하고 화려한 단결이 춤을 춘다. 북조선식 종합예술의 궁지와 신념, 경이가 펼쳐진다. 부제를 ‘질서의 이면’이라고 붙였는데, 그것은 숨은 그림 찾기로 드러나는가 하면, 모습을 저 너머에 감추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사진은 질서의 표면을, 그것도 매우 협소하게 보여주므로, 이면을 읽어내는 건 여러분의 몫이다.

2장 ‘스며들다 - 배타와 흡인’은 북한이라는 공간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곳을 탐색하는 남한인들의 풍경을 담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기 남북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술한 이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가장 발딛기 어려운 곳이다. 방문자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내가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적 사명감에 사로잡힌다. 쉴 틈 없이 사진기를 꺼내드는 것이다. 물론 북한에서 촬영행위는 ‘여기에선 사진을 찍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서야 가능하다. 허락과 동시에 사람들은 권총을 꺼내듯 재빠르게 사진기를 꺼내고,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듯 셔터를 누른다. 북한사람들도 감시와 체제선전을 위해 남한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다. 가끔 사진기는 상대방에게 건네져 우호와 기념의 정을 나누는 가교의 역할마저 담당한다. 이때 서로는 기꺼이 상대방의 사진사가 되어준다.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죽일 듯 총을 겨누던 남과 북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에게 사진기를 겨누는 모습은 거룩하고 기이한 의식의 전환처럼 보인다. 그 순간 사진은 ‘그냥 찍는’ 것이 아니라 ‘찍어야만 하는’ 것이다. 저마다가 찍어낸 사진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공유되고 기념되었는지는 상상할 뿐이다.

3장 ‘말려들다’는 북한이라는 거대상징이 남한에서 어떻게 재현, 제시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을 담고 있다. 오랜 시간 북한은 남한에서 빨갱이 괴물 전쟁광 흡혈귀로 재현되어 왔다. 별건 대낮 서울시청광장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형상화한 인형의 모가지가 잘리고 인공기와 함께 화염에 휩싸이는 풍경은

어딘지 끔찍하지만 낯설지 않다. 북한은 남한사회를 분열시키는 동시에 강력한 통합을 강제하는 존재였다. 무엇이든 북괴빨갱이 탓을 하면 만사형통이니까. 제주도민 열 중 하나의 목숨을 앗아간 4.3의 학살에도, 민주주의를 꿈꾼 광주의 항쟁을 총칼로 짓밟는 데도 ‘빨갱이 사냥의 논리’는 효력을 발휘했다. 공산주의로부터 남한을 구해주러 왔다는 미군이 민간인에게 총을 난사했던 노근리의 참극을 ‘구세주의 작은 실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에도 북한은 있었다. 북한보다 북한을 더 애용하게 된 우리는 누구일까. 괴물과 싸우다가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리는 ‘전복된 자기모순’은 남한만의 비극이 아니다. 1장 ‘펼쳐들다’와 3장 ‘말려들다’는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준다.

<애국의 길>은 제목 그대로다. ‘아스팔트 보수’, ‘아스팔트 어버이’라 불리는 애국자들의 얼굴을 담고 있다. 빨갱이들이 외계인이 아닌 이상 내 친구 내 가족이듯, 군복을 입은 늙은이들도 내 친구 내 가족이 아닐까. 애국의 길 위에서 나는 완고한 아버지를 만난다. 외국보다 낯선 애국에 대해 생각한다.

<분단인 멀미>는 두만강에서 압록강 끝까지 달리는 버스에서 찍을 수밖에 없었던 흔들린 사진들이다.

<잃어버린 보온병을 찾아서>는 2010년 11월 연평도에서 발생한 포격사건을 담고 있다.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한 비극 앞에서 여당대표가 벌인 ‘보온병 희극’은 분단체제의 견고함과 허약함을, 분단의 작동과 오작동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가면의 천안함>은 2010년 3월 백령도 앞 바다에서 두 동강난 채 가라앉은 천안함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것은 폭침이었을까, 좌초였을까. 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많은 단서가 흐릿한 가운데, 명확한 것은 그 배에서 46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 수색작업하던 군인과 어부가 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다. 이 작업은 본 대로 믿지 않고, 믿는 대로 봐야만 하는 분단의 시각술에 대해 말한다.

<분단인 달력>은 쓸모없는 달력이다. 모든 날짜에 새빨간 기록이 얼룩처럼 묻어 있다. 이 기록은 1945년 해방이후 오늘까지 우리에게 펼쳐진 술한 ‘분단관련 사건들’의 더미다. 사건의 한줄 요약을 저마다의 날짜에 새겨 넣었다. 이 한줄 요약의 묶음이 원고지 1천매에 달한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일까. 분단인의 나날은, 광기의 나날이었다.

여기 그을린 몇 점의 사랑, 아니 삼겹살이 있다.

이 사랑은 익다 말았다. 아니 타다 말았다.

삼겹살은 그저 음식이기에, 우리는 그저 바라본다.

이것이 타다 만 사람의 살이라면,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나는 북한포격으로 불에 탄 연평도의 가정집 냉장고에서 이 사진을 찍었다.

이성은 차이를 구분하고, 감성은 공통점을 모색한다고 했던가.  
내 눈엔 여전히 불에 탄 사람의 살로 보인다. 그을린 사랑의 살로 보인다.

아리구나. 너와 내가 힘겹게 칠한 파랑이 핏빛 파란이라니.

메 모





제6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분단과  
평화** 사이

일시 | 2019. 02. 26(화)-02. 28(목)

장소 | 북한산 생태탐방연수원, 철원 일대